



은행 (Neutral)

7월 연체율: 조금씩, 계속 상승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국내은행의 2025년 7월 말 연체율은 0.57%(+10bp YoY)로 상승했습니다. 업종의 대출 성장률 둔화와 꾸준한 연체채권 증가율 상승이 동반되며 +10bp 내외의 YoY 상승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H25 중 은행업종 연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정정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금리 하락에 의한 건전성 개선 효과가 주효할 것이라는 판단은 유지합니다.

국내은행 7월 말 연체율 0.57%(+10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2025년 7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57%(+10bp YoY)로 상승 (그림 1~6)
-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90%(+19bp YoY), 자영업자 연체율은 0.72%(+11bp YoY)로 상승.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도 0.14%(+9bp YoY)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
- 가계 연체율은 0.43%(+5bp YoY)로 꾸준히 상승. 신용 등 일반대출은 0.86%(+10bp YoY), 주택대출 연체율은 0.29%(+4bp YoY)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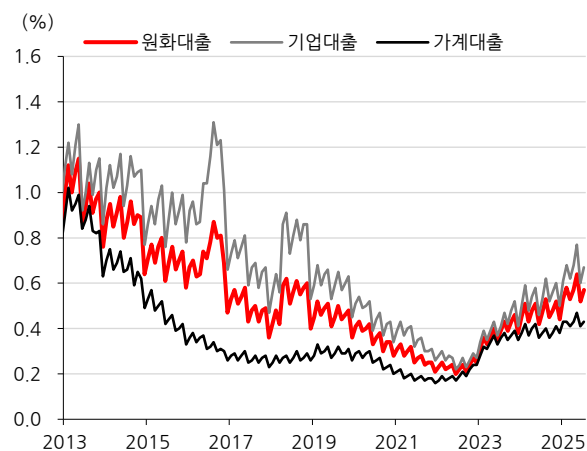
연체채권 증가율은 꾸준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7월 말 13.7조원(+28% YoY)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 (그림7)
- 7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 규모는 2.8조원으로 4% YoY 증가했고 (그림9) 월 중 정리(상-매각)된 연체채권은 1.6조원으로 잔액 대비 정리가율이 평년과 유사하였음 (그림10)
- 기업 (추정): 7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30% YoY로 추산. 대출 성장이 멈춘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는 울들어 3조원 초 중반에서 지속 횡보. 법인 중소기업 연체잔액은 32% YoY 증가한 것으로 추산돼 여전히 높은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12)
- 가계 (추정): 7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18% YoY로 추산. 모수인 대출이 역성장을 지속하면서 신용대 연체잔액 증가율도 한 자릿수대로 낮아졌으나, 7월에는 13%로 상승. 주택대출은 모기지 repricing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에 의해 연체잔액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가 지속됨 (그림12)

조금씩, 계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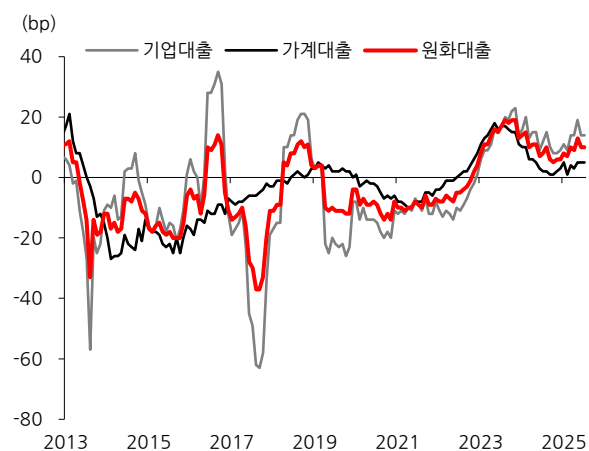
- 은행업종 연체율은 아직 상승세를 지속. 연체채권 정리 규모의 계절성을 감안한 3개월 이동평균 연체잔액으로 살펴보면, 그 증가율이 2024년 말부터 완만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그림8)
- 은행업종의 대출 성장률이 3% 초반으로 하락한 것에 비해, 연체채권의 증가 속도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음. 연체율이 전년 동월 대비 10bp 내외의 상승폭을 지속하는 원인은 연체 증가와 모수 둔화가 동반된 것
- 2025년 하반기 중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정정함. 현 시점에서 연체율이 급감하지 않는 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됨
- 그러나 성장 둔화와 경기 부진이 연체율의 개선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금리 하락에 의한 건전성 개선이 더 주효할 것이라는 판단은 유지함. 변수는 법인 기업의 연체채권 증가 속도와, 5년 전 취급된 고정형 주담대출의 연체율 추이가 될 것으로 전망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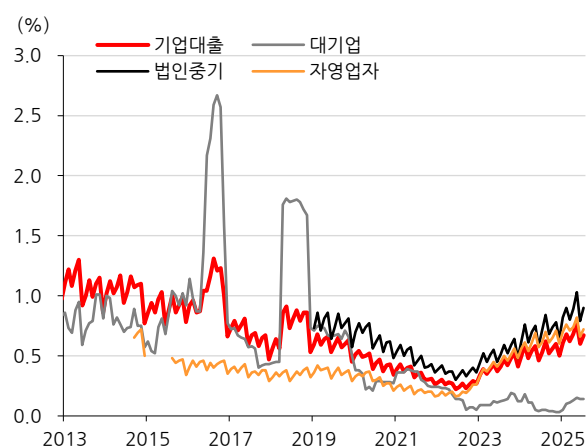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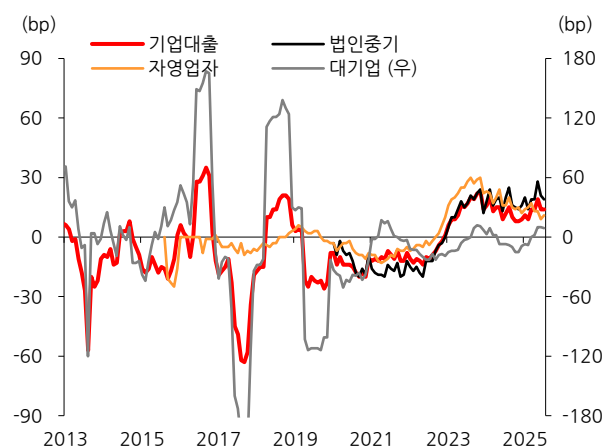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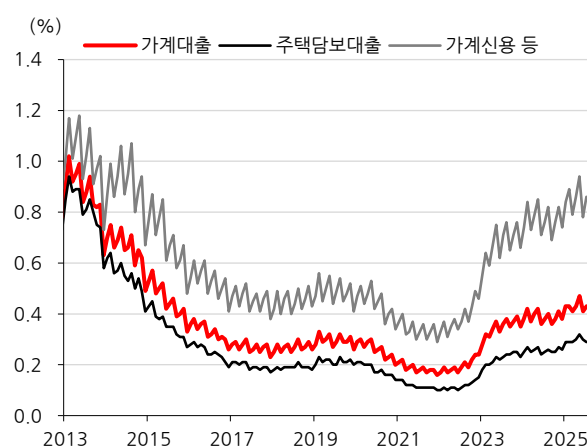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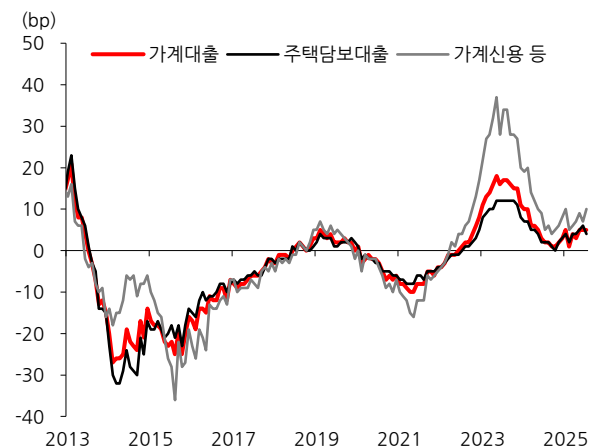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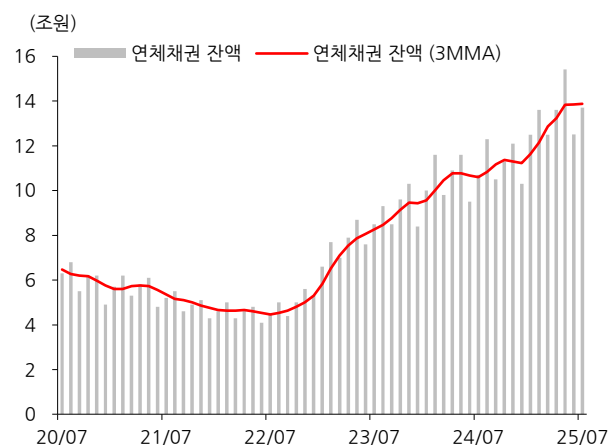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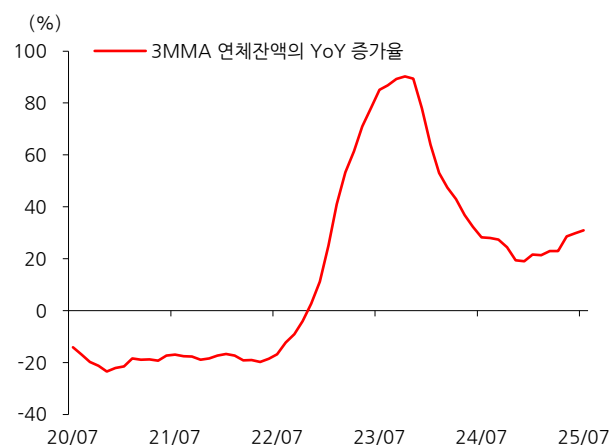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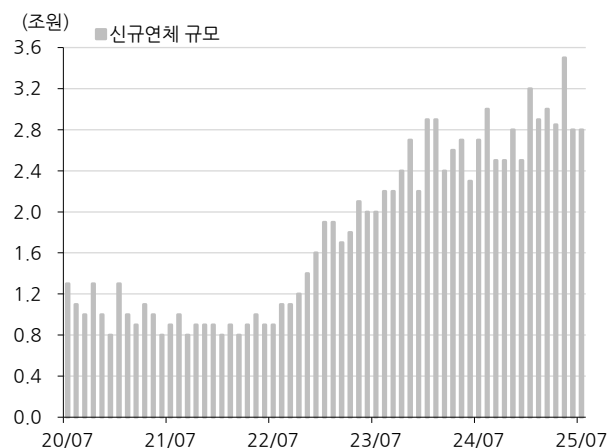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3개월 이동평균 연체채권 잔액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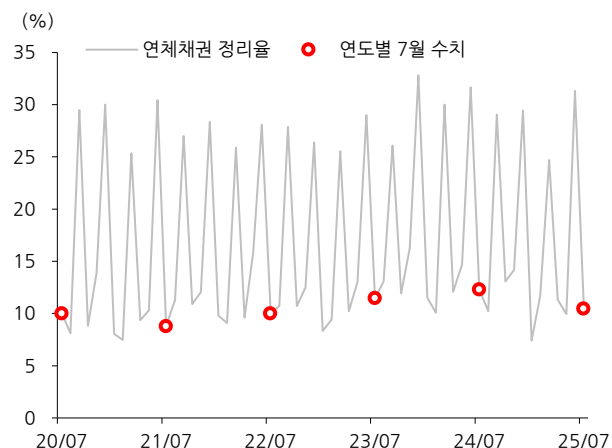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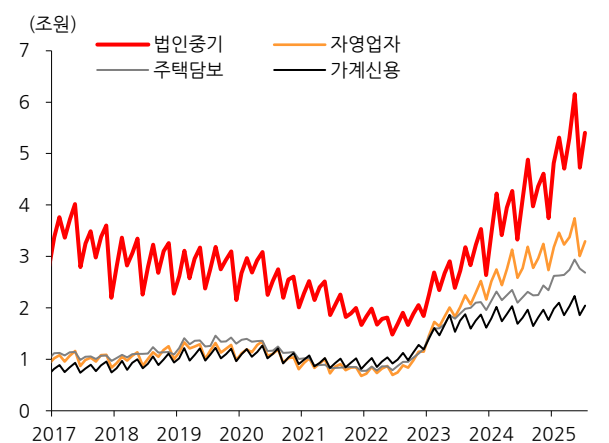
[그림10]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



주: 당월 정리 규모/(전월 연체잔액+당월 신규연체)의 비율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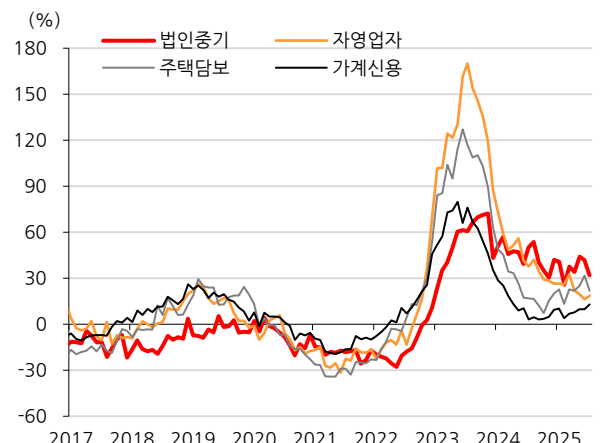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9월 29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06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4%	9.6%	0.0%	100.0%